

학생입장 고려한 정책 실시를 인권복지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3년간 경희의 배움터를 다니면서 우리의 복지시설이 하나하나 늘고 있으며, 편리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발전이 있도록 뒤에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여러 학생들께 감사드리며, 큰 것을 하느라고 소홀히 한 것은 몇 가지를 적으니 제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거나 또 내부의 사정상 여의치 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 버려도 무방할 것 같다.

첫째, 수원권 스포츠와 시내버스 승강장의 통합을 바란다. 학교를 하면서 수원방향으로 가는 학우는 누구나 한번쯤 감동을 한다. 교문 앞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교내 승강장의 스포츠를 이용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수원으로 통학하는 한 학우는 "7시에 집에 갈 경우 학생들의 줄이 너무 길어 시간 맞추어 나가면 서서기야하고 그나마 서서기까지도 줄에서 걸리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 또한 이러한 것을 고려해 시내버스 승차장으로 가면 시내버스 시간을 잘 몰라 잘못하더라는 스포츠보다 더 기다리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까"라고 말한다.

학우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마땅히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배차간격이 훨씬 줄게 되어 더욱 편리해 지리라 본다.

시내버스가 교내승강장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떨지? 그리

고 등교시에도 수원역에서 스포츠 승강장과 시내버스 승강장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은 비슷한 것 같다. 이것도 시내버스가 스포츠 승강장에서 한번 더 승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좋을 것 같다.

둘째, 수원권 스포츠와 노선의 통일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아주대-남문-역전인 경우와 그 반대인 역전-남문-아주대인 경우에서 오는 학우들의 혼란이다.

예를들면 아주대에서 내린 한 학우가 뒷자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에서 내려려면 초만원인 버스속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 뒷자리를 포기하고 앞부분에서 서서 버스를 탔는데 고속도로 진입로에 차량이 폭주한다. 이는 이유로 우회하여 역전-남문-아주대의 노선으로 간다면 사서 고생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여 이 학우는 배반감마저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학우들과 기사 아저씨 사이의 불신의 벽도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통일성 있게 노선의 고정화를 꾀한다면, 버스의 전면도 방향표시를 하여 승차시에 승차자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셋째, 남부터미널에서 오는 직행버스의 신갈 승차비 문제이다. 현재 220원을 받는데 이는 거리, 시간등을 고려해 볼때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 가격을 낮춰 100원대로 인화가 된다면

신갈 학우들의 교통편의에 한 몫 할 것 같다. 꼭 추진해 왔으면 한다.

넷째, 공대 도서관 열람실 출입 문제 관해서 언급하고 싶다.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하는 곳인데 다른곳보다도 더 심하게 배그덕 거리는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수선이나 교체해 해야겠고, 문이 너무 심하게 닫히는 경우나, 후시 안 닫히는 경우(특히 여름과 겨울의 냉·온방식)를 고려하여 유압기를 달았으면 한다.

다섯째, 각 건물마다 안내도가 없어서 불편하다.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방대한 건물에서 3년째 다니는데도 위치 파악이 안되는 곳이 많다. 신입생이나 외부인 그리고 타 단대생들은 물어봐서 무엇이라? 학생회관 및 타 단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꼭 입구에 층별도 상세히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이야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양: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 편집실)

안내되어 있는 안내도를 설치했으면 한다.

여섯째, 학생회관의 엘리베이터 사용문제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가 표시가 안되어 며칠이 지난 데도 몇몇 학생중이다. 또 5층에서는 열고 닫을때 마다 쇠가 딸랑 딸랑 소리가 나는데 고치시켜 달라고, 불이 약해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구별이 안 간다. 표시가 확연히 나올수있도록했으면 한다.

그리고 신속한 운행을 위해 꼭 휴게운행은 어떨지? 짝수날은 짝수층만 홀수날은 홀수층만 선

수원캠퍼스 건축 현황 좀더 내실있는 공사 요구돼

우리나라의 각지역에는 여러개의 대학들이 산재해 있다. 그들 각 대학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문적인 연구, 탐구의 자재에서, 또 학교의 공간들을 차지하고 건물들을 포함한 조형물들에서... 그러나 유독 우리 수원캠퍼스만은 적어도 내가 입학한 89년부터 지금까지 그런식의 노력을 보이지는 데에 미온적이었다.

강남에서 우리와 같은 승차장을 이용하는 단국대 지방캠퍼스의 역사는 우리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잘 뻗은 도로와 편하고 보기좋은 주변환경은 물론이고 건물들 모두가 대리석이나 빨강벽돌로 아가자기하고 현대식으로 건축되어져 있다.

비단 이 단대뿐만 아니라도 비만오면 빗물이 똑똑 세는 외국어교육관-그것은 자연과학관도 마

찬가지-과 지어진지 10년이 넘는 학교에 도서관 하나 없는 실정, 이런 것들이 학교를 아끼는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필요한 건물을 제때에 공급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짓는 건물들 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본다. 완공된 지 1년이 안된 학생회관의 진입로 계단의 타일이 발로만 차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론이요 어떤 건축과 교수님 표현으로는 10년안에 무너진다는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담담했겠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의 자금유동이 이루어지길래 항상 공기(工期)도 못 맞추고 지어진 건물들도 날림인지, 혹은 과정에서도 떡고물이 있는지...

지금 회계동에는 고덕양식의 멋들어진 대강당 박물관, 치대생들을 위한 건물들이 거의 완공 단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강

당은 십수년간(물론 사정은 있었지만)의 공사기간을 유지하며 건축이 되어지고 있고 수원캠퍼스에는 비가 세는 건물들과 골조만 세워진 도서관 건물이 있다.

80년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수원캠퍼스의 역사는 91년이 되는 지금에 들어서는 어떤 10년이 지난, 이제 역사가 오래된 대학이 된 것이다.

그러나 도로포장공사도 안되어 조금만 비가 오면 도로로 학교를 다녔으며 비가 억수로 오는날에는 듣고 싶은 강의,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지 못한 채 집에 틀어박혀 상상의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때 당시의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에 비하면 현재, 91년도의 수원캠퍼스는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족의 발전과 눈부신 약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이면에서는 양적팽창에 비해 질적성숙도가 미흡했다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다.

차 재 영
(사번104-3)

인간의 양심 저버린 산업폐수 금번 페놀 방류사건은 빙산의 일각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가정용 연료, 공장들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우리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온실화현상을 초래했으며 산업용 쓰레기로 국토는 점점 황폐화되어 가

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염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합성세제 안쓰기 및 카드뮴 전지 안 버리기, 프레스 가스 사용 안하기 등 작은 실천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것을 두산기업의 계열회사인 두산전지에서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낙동강에 그대로 방류하여 식수를 오염시킨 대소동이 있었다. 더구나 소독 한계를 넘어선 페놀로 인해 식물의 생육까지 위협을 풍기는 식수를 공급하게 하는 등 엄청난 일대에 폐수 소용을 물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위를 준다. 우리는 모두 자연에서 왔으며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자연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며, 우리가 돌아갈 한뼘의 작은 땅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변할수 없는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해 순리를 거역하고 거스를수 없는 자연마저 위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산업화의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거역은 우리의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해지고 우리는 손익의 이익에 연연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팽배로 인한 잘못된 이기주의를 금품 만능을 낳았고, 오늘 내 주머니에 든 두둑한 금전은 내일 내가 숨 쉴 공기의 오염을 생각하게 하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 먹고 사는 일이란 그저 배불리 먹고 속하게 쓰며 편하게 잠자는 것 뿐인가 생각해 본다.

우리가 굳이 후손에게 이어줄 그 무엇도 없이 그저 나 하나의 편안함으로 치장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금번 두산전지의 페놀 폐수 사건도 그러한 금전만능과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사후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해 산업공해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폐수방류에 78%나 기여하는 대기업의 기업 윤리는 국민을 간접 살인하는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정부 역시도 환경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간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폐수뿐 아니라 야기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관리 역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꿈을 위해서 체면도 지키고 자존심도 차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로써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의 팽배와 눈 앞의 작은 이익이 우리의 회복될 수 없는 양심과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낙동강에 유입된 폐수량에 비하면 우리의 양심과 자존심도 그만큼 오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구태연하게 들리는 자연보호 운동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자연만이 우리의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지켜봐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굳이 후손에게 이어줄 그 무엇도 없이 그저 나 하나의 편안함으로 치장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금번 두산전지의 페놀 폐수 사건도 그러한 금전만능과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사후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해 산업공해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폐수방류에 78%나 기여하는 대기업의 기업 윤리는 국민을 간접 살인하는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정부 역시도 환경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간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폐수뿐 아니라 야기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관리 역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꿈을 위해서 체면도 지키고 자존심도 차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로써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의 팽배와 눈 앞의 작은 이익이 우리의 회복될 수 없는 양심과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낙동강에 유입된 폐수량에 비하면 우리의 양심과 자존심도 그만큼 오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구태연하게 들리는 자연보호 운동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자연만이 우리의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지켜봐 주게 될 것이다.

최 명 주
(농학·2)

깊은 진리를 만난다는 희망

3월주제 '개강'



김 성 수
(사회대교수·경영)

3월의 개강은 우리 대학생들이 희망과 야망 그리고 대망의 포부를 갖는 세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강의 첫째 의미는 만남과 희망에 둔다. 그간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고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3월의 개강에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어느 노교수의 회고담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개강과 더불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개강과 더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올려 놓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공부를 아니하는데 성적이 향상될 일이 없고 책을 보지않는데 지식이 쌓일 일이 없다. 학문과 공부에 인과연보의 철칙이 냉엄하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빨리 터득해야 한다.

공부에 게으른 자는 실패하고 공부에 부지런한 젊은이는 성공한다. 그리고 행동하는 나

'개강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만남의 희망과 학문의 야망 그리고 덕망을 갖추는 시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야 한다.

이제 희망과 공부의 개강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큰 뜻을 가슴에 품고 구리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큰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희의 넓은 바다에서 학문의 노를 열심히 저어가 보자. 그럼 반드시 성공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교수동정

손두옥교수 홍콩행

▲손두옥(체육학과·체육)교수는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제16회 국제 7인제 럭비대회 단장으로 홍콩행.

동문모임

건대부고 동문회

【서울캠퍼스】▲건대부고=오늘 오후5시반, 동화반점 ▲중앙·근호=오늘 오후6시 반본관 ▲청주고=오늘 27일 오후5시 도서관 앞 ▲남대전고=오늘 27일 오후5시 체대앞 녹원 ▲동인천고=오늘 28일 오후5시 체대앞 녹원 ▲평성고=오늘 28일 오후6시 녹원 ▲청주·윤호=오늘 29일 오후6시 수화장

【수원캠퍼스】▲창원고=오늘 29일 오후5시반 2호관 학생식당 ▲광주·전남·전남고=오늘 28일 오후5시반 1호관 휴게실 ▲제물포고=오늘 28일 오후5시반 1호관 휴게실

습득

본실자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윤수(지리·89) ▲김영기(생물·

87) ▲유철희(물리·89) ▲김지성(경영·89) ▲안명찬(경영·86) ▲문병희(경영·88) ▲김명희(경제·85) ▲김은수(경제·89) ▲이창성(경제·89) ▲조정민(경영·87) ▲김진주(가관·88) ▲한연희(간호·88) ▲김형일(물리·2) ▲정진철(건축·4) ▲송호태(토목·2) ▲김석주(원자·4) ▲서정원(전산·4) ▲박성진(심유·2) ▲이현호(조경·3) ▲조성은(요공·3) ▲신용호(농학·4) ▲권순희(조경·3) ▲한진희(체육·4) ▲김현태(태권·4) ▲한상갑(체육·3) ▲정학명(체육·2) ▲최인규(태권·4) ▲조성철(체육·3)

◆소포=▲유성호(불문·2) ▲최윤정(일본·3) ▲이현우(영문·2) ▲이해정(행정·2) ▲황창현(물리·2) ▲양민홍(유전·2) ▲문일영(환경·1) ▲신재호(유전·3) ▲박노길(유전·2) ▲이성호(산공·1) ▲최철환(전산·2) ▲성종원(화공·3) ▲신우동(전자·4) ▲박진우(기계·3) ▲김형욱(전자·3) ▲이현구(임학·2) ▲박시영(육상부) ▲최남일(배구부)

사회대 신입생 농구대회

제1회 사회과학대학 과대학 신입생 농구대회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회과학대 농구동아리 REBOUND주최로 체육교육관앞 농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첫대전표는 사회 대 경영, 회계 대 행정, 무역학과는 부전승이며 29일 오후에 결승전을 갖게 된다.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수원캠퍼스】▲등기=▲김성원(불문·2) ▲지영미(불문·4) ▲송현직(중문·3) ▲허찬영(서반·3) ▲김경진(서반·4) ▲안지선(서반·4 반승) ▲박원진(행정·1) ▲최종화(행정·3) ▲고기철(행정·2) ▲유문선(경영·4) ▲박정윤(경영·2) ▲성재호(무역·4) ▲오창배(수학·2) ▲유병홍(수학·3) ▲이호(수학·3) ▲김현태(우주·4) ▲

한 지휘자의 용기,
그리고 독일의 통일.



독일 통일의 기점이 된 라이프찌히 집회의주최, 쿠르트 마우르.

얼마전 1989년 10월 9일 동독 라이프찌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화산같은 열망과 국가권력을 필두로 한 보수세력이 대치중이었습니다. 급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듯한 갈등의 현장에서 신념과 용기에 찬 설득으로 화해의 길을 마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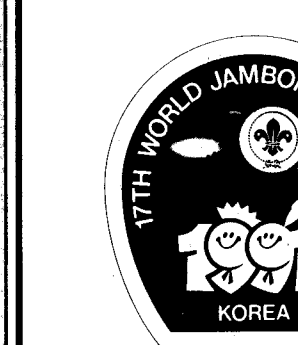
쿠르트 마우르. 그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립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있는 설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이프찌히 집회는 통일 독일 건설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통일 축구, 남북 예술제... 민족의 한이 된 휴전선을 넘어 훈훈한 소식들이 오가기 시작하는 지금, 대립보다는 화해하는 용기가 진정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에 풀어야 할 민족의 숙원, 통일을 이룰 주역은 바로 젊은 당신입니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후원 '91 세계잼버리 공인은행



지구촌 청소년들의 우정과 보람의 한마당.
17회 세계잼버리 '91. 8. 8~'91. 8. 16까지
한국의 설악에서 열립니다.

●쿠르트 마우르 라이프찌히 게반트 하우스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 비올라 연주자 출신의 동독 총리 드메지예프와 체코 대통령 하벨 등과 함께 동유럽 민주화에 이바한 예술인의 한사람이다.